

수소 · UAM · 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

□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중앙	-(해당 없음)
	강원	□ 김진태 지사 “캐나다와 수소 산업협력, 바이오 기업 미국 진출 돕겠다” (2024.10.08) - 김진태 강원지사는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하며 수소, 반도체, 바이오산업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, 귀국 직후 실질적인 후속 조치 시작 - 강원자치도는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앨버타-코리아 포럼에 참여해 캐나다 기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- 또한, 캐나다 수소산업 컨벤션에도 실무진을 파견하여 수소산업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
	울산	□ 울산 세계 미래산업박람회11월6일 개막...2차 전지·수소산업 등(2024.10.07) - 울산시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‘울산세계미래산업 박람회(WAVE) 2024’ 개최. 박람회는 울산의 주력 산업과 신산업을 포함해 첨단 기술을 대대적으로 전시하는 국제 산업박람회로 부상 - 박람회는 이차전지, 수소에너지, 도심항공교통(UAM) 산업을 중심으로 총 5개 주제로 구성되며, 울산의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기술 소개 - 다양한 산업 포럼과 수출 상담회도 열려 울산의 산업적 비전을 세계적으로 알리고, 해외 바이어들과의 협력을 통해 울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예정 - 박람회는 지역 기업뿐만 아니라 고려아연, 삼성SDI 등 대기업도 참여해 울산이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, 울산의 산업 융합 기술이 전 세계에 소개될 전망
	전남	□ 전남도, 광양초 남산단에 국내 최대 규모 액화수소충전소 준공(2024.10.07) - 전남도는 광양 초남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충전소 준공. 충전소는 국비 70억원과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하루에 최대 20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실정 - 충전소는 수소버스 150대를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, 기존 충전소에 비해 충전 속도가 약 2배 빠름. 이를 통해 광양시내를 운행하는 수소버스의 연료 공급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예정 - 액화수소는 기체보다 안전하며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버스 등 상용차 보급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 전남도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를 총 37개로 늘리며 수소 생태계를 확대할 계획 - 전남도는 이번 액화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전남 지역의 청정수소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, 에너지 자립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판 마련
	완주	□ 완주 '수소산업 중심 도시' 적극 지원 선포한 전북자치도의회(2024.10.08) - 전북자치도의회는 완주군을 '수소산업 중심도시'로 육성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, 수소특화단지 조성을 포함한 관련 사업을 강화할 예정. 이는 완주군이 수소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 - 완주군은 수소차와 수소저장용기 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소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, 관련 기업들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.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소산업 발전 추진 기대 - 특히, 현대자동차와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대기업들이 완주군에서 수소산업을 주도하고 있어, 완주가 수소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- 전북자치도의회는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, 수소산업을 통해 완주군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미래 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조성
UAM	중앙	□ 정부 내년 UAM 상용화한다더니...줄줄이 연기(2024.10.06) - 정부가 계획한 UAM 상용화 일정이 기체 조달 문제로 연기됨. K-UAM 드림팀만 실증 작업을 진행 중이며, 나머지 컨소시엄들은 기체 계약 지연으로 일정이 연기된 상태 - 카카오모빌리티, LG U+ 등 참여하는 퓨처팀은 기체 조달 분담금 문제로 실증 계획을 수정했으며, UAMitra 팀은 기체 계약 미완료로 인해 실증 일정이 내년 1분기로 연기 - UAM 기체의 이착륙 및 승객 탑승이 이루어지는 버티포트 구축도 지연되고 있음. 국토부는 기체 확보 및 국산화 지원 필요성 강조 - 염태영 의원은 정부가 국내 UAM 시장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
	전북	□ 전북자치도서 열린 'K-UAM 기술개발 경연대회' 성료(2024.10.06) - 전북특별자치도 주최 'K-UAM 기술개발 경연대회'가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됨. 참가자들은 직접 설계한 UAM 기체를 통해 기술력과 창의성 주목 - 이번 대회는 UAM(도심항공교통) 기술 개발을 목표로, 축소 기체로 다양한 비행 경연을 진행. 참가자들은 비행 성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UAM 기술의 미래 가능성 증명 - UAM 컨퍼런스도 함께 열리며, 최신 기술 동향과 전망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됨. 참가자들과 산업 관계자 간 의미 있는 교류가 진행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전북	□ 전북자치도, UAM 선도도시 도약 노린다...실증·산업 육성방안 중간보고회 개최(2024.10.07) - 전북자치도는 UAM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실증 및 산업 육성방안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, 전북형 UAM 전략 구체화. 민관군 협의체 발족 후 공역 협의 및 정책 동향 공유를 통해 지역 맞춤형 UAM 도입 준비 - 중간보고회에서 전북형 UAM 도입을 위한 전략 검토가 이루어졌으며, 공역 검토, 버티포트 후보지, 중장기 사업 모델 등 발표 - 참가자들은 UAM 성공적 도입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증대 방안과 지역 특화 사업 모델에 대한 자문 의견 제시 - 전북도는 UAM 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 계획을 구체화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응 계획 발표
	익산	□ "교통 요충지 익산, 도심항공교통(UAM) 도입 필요"(2024.10.08) - 익산시의회 이중선 의원은 익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도심항공교통(UAM)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. UAM은 교통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 강조 - 이 의원은 UAM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, 지역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혁신적인 플랫폼이라고 언급 - 익산시는 교통 허브 도시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으며, UAM을 도입해 전국 어디든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가능 - 이중선 의원은 전주시와 남원시가 이미 UAM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, 익산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
	서산	□ 서산 교육지원청 '차세대 산업 UAM' 유·초·중·고 교과 개발 본격 추진(2024.10.08) - 서산교육지원청은 서산 특화 교과 개발과 함께 차세대 산업 UAM을 주제로 한 교과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함.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학년별로 맞춤형 교재가 개발되고 있는 실정 - 이번 교과 개발은 차세대 모빌리티, 스마트 모빌리티 등을 주제로 하며, 5~6학년 대상 교재도 개발 중임. 고등학교에서는 '미래형 항공기체' 관련 교과서도 준비 - 서산교육지원청은 서산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특화 교육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을 목표로 설정
	충남	□ 충남도, UAM·AAV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 착수회의(2024.10.08) - 충남도는 UAM(도심항공교통)과 AAV(미래형 항공기체)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 착수회의 개최. 2028년까지 총 320억 원을 투입해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성능 평가 기반을 구축 예정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- 서산시를 중심으로 시험장과 연구센터가 세워지며, 이는 충남도 UAM 산업 육성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. 핵심 부품 시험평가 및 인증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고, 안정적인 UAM 도입 기반 마련 - 충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UAM 관련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, 자율주행, 스마트 모빌리티 등 차세대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 예정 - 또한,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, UAM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우주	중앙	- (해당 없음)
	지방	□ 2024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! 대한민국 우주 경제시대의 서막을 열다 (2024.10.04) - 대전시는 2024년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을 통해 우주경제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, 대전샛(SAT) 프로젝트 추진. 이 프로젝트는 2026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성장 도모 - 이번 행사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와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개최, 우주산업 관련 전시와 과학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임.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전시와 강연 준비 - 세계과학문화포럼, 산업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,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콘텐츠를 통해 대중이 우주기술을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함. 과학 축제와 문화공연도 함께 진행 예정 - 이번 축제는 미래 과학자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며, 대전이 세계적인 우주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함. 우주와 과학의 콜라보를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
		□ 부산시, '해양-우주 기술가족 페스티벌' 성황리에 마쳐(2024.10.04) - 부산시는 2024년 해양-우주기술 가족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. 이 행사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들이 참석해 해양과 우주기술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 진행 -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개발한 해양신산업 특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, 5대 1의 높은 경쟁률 기록 - 부산시는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예정, 이번 행사를 통해 해양수도 부산의 신산업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

□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국가기관	□ 대한상의, 한-싱가포르 포럼 개최...디지털·수소 등 다방면 협력(2024.10.08) - 대한상공회의소는 한-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 디지털, 바이오, 수소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논의함. 양국의 주요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미래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 모색 -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, 수소 에너지,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으며, 양국이 공동으로 혁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지가 강조됨. 특히, 수소 기술 관련 협력이 주요한 의제로 논의 - 이번 포럼은 한-싱가포르 수소 기술 협력과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으며, 양국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기회로 작용
	지방기관	□ 1616만원→2.6만원...수소 경제시대 앞당길 신소재 찾았다(2024.10.10) - 광주과학기술원(GIST) 학생 창업 기업 암모닉스는 기존 루테튬 촉매보다 600배 저렴한 니켈 기반 촉매를 개발해 수소 생산 비용을 크게 낮춤. 이는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혁신으로 평가 - 암모니아 분해를 통해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촉매는 수소 단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, 암모닉스가 개발한 비귀금속 촉매는 기존의 귀금속 기반 촉매를 대체할 수 있는 저비용 대안 - 비귀금속 촉매는 수소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수소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. 이를 통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- 암모닉스는 11월 드론 시범 운행을 계획하고 있으며, 장기적으로 글로벌 수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설정. 이 기술은 수소경제의 상용화와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
UAM	국가기관	□ 국립중앙과학관, UAM·자율주행버스등 ‘미래 신기술 특강’ (2024.10.07) - 국립중앙과학관은 UAM(도심항공교통)과 자율주행버스를 주제로 한 미래 신기술 특강을 개최할 예정임. 첫 강연은 10월 9일에 ‘하늘을 나는 택시’ 주제로 진행 - 강연에서는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UAM의 현황과 최신 기술을 소개하며,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준비 과정을 설명할 예정 - 두 번째 강연은 11월 30일 자율주행버스 기술과 실증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며, 관련 기술과 향후 발전 가능성 소개 - 이번 강연을 통해 미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된 사회를 준비하는 기회 제공
	지방기관	- (해당 없음)
우주	국가기관	□ ETRI 6G·우주 인터넷 등 초공간 네트워크 연구 프로젝트 '에이블 맨' 추진 (2024.10.04) - 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이 6G와 우주인터넷 시대를 대비해 초공간 네트워크 연구 프로젝트 '에이블 맨'을 추진함. 이를 통해 지상, 해상, 공중을 아우르는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차세대 통신 인프라를 구축 예정 - 2025년에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하며, 전문가들의 역량을 모아 산·학·연 협력을 추진. K-위성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,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목표로 설정 - '에이블 맨' 프로젝트는 위성통신 기술 도전과 이동통신의 공간확장을 목표로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 응용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음. ETRI는 이를 통해 국방, 스마트공장,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도 큰 변화 기대
		□ 재료研, '우주·에너지·나노' 대표 소재부품 기술 공개(2024.10.07) - 한국재료연구원(KIMS)은 'KIMS TECHFAIR 2024'에서 우주, 에너지, 나노 분야의 첨단 소재부품 기술을 공개함. 이번 행사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, 기업들과의 소통 및 협력 강조 - 행사에는 항공·우주, 미래 모빌리티, 친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총 99개의 기술이 전시되며, 재료연의 세계 1등 기술도 공개될 예정. 이번 행사는 소재 산업의 혁신 도모 - 이번 행사는 첨단 기술 연구의 성과를 기업과 국민에게 전달하는 자리로,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
	지방기관	□ 대전시, 우주 발사체 운용능력 검증 지원 사업 추진...소형 위성시장 진입 기반조성(2024.10.06) - 대전시는 우주발사체 운용 능력 검증 지원사업을 통해 소형위성 발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기술개발 및 운용 검증 지원 - 대전테크노파크는 발사체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발사체 시험과 운용을 검증하는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며,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자문도 함께 제공 예정 - 이 사업은 최대 2년간 총 8억원을 지원하며, 준궤도 고도 시험 발사를 통한 소형위성 발사 운용성 검증을 목표로 설정. 이를 통해 대전이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생태계 구축 - 대전시는 지역 발사체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소형위성 발사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며,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

□ 민간 및 기타(포럼, 세미나, 토론회 등)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민간기업	□ 중형 표준차 5톤·수소ATV 실물 세계최초 공개(2024.10.04) - 기아는 KADEX 2024에서 중형표준차 5톤과 수소 경전술차량(ATV)의 실물을 세계 최초로 공개. 중형표준차 5톤은 다양한 환경에서 뛰어난 기동성과 수송 능력을 발휘하며, 병력 및 화물 수송이 가능한 다목적 차량 - 수소 ATV는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여 발열과 소음이 적고, 적에게 노출될 위험을 줄이며,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 차량.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경량화된 차체로 항공 수송이 가능하며 군의 작전 수행을 돕는 역할 - 중형표준차는 다양한 사용 목적에 따라 변형이 가능한 플랫폼 기반의 사시 구조로 개발되었으며, 내년부터 군에 공급될 예정임. 이는 군의 이동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차량으로 평가 - 기아는 이번 전시회에서 소형전술차와 함께 산불진화차, 개선형구급차, AI융합통합경계시스템 등 특수차량도 선보이며, 다양한 군사 및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차량 전시
		□ 친환경 항공은 '수소' 가 답이다(2024.10.04) - 하이드로젠버터플라이(Hydrogen Butterfly)는 수소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항공기 및 도심항공모빌리티(UAM) 분야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. 수소연료전지는 전기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하며 항공기 전동화의 핵심 대안 - 수소연료전지는 리튬 기반의 2차 전지보다 가볍고,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, 화재 위험이 적어 항공기와 UAM에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동력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큼. 이로 인해 수소연료전지가 항공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로 부상 - 하이드로젠버터플라이는 방사형 배터리 구조를 채택해 효율성과 가성비를 모두 높인 연료전지 파워팩을 개발 중임. 이 기술은 기존 전지 대비 비용 효율이 높고, 더 가벼운 무게로 항공기 성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 가능 - 이 회사는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2026년까지 고출력 항공기 연료전지를 개발할 예정이며, 이를 통해 글로벌 항공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, UAM 연료전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할 계획
		□ 현대차 수소버스 '일렉시티 FCEV' 누적 판매 1,000대 돌파(2024.10.06) -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가 누적 판매량 1000대를 돌파함. 이는 2019년 출시 이후 도심형 버스로서의 탁월한 성능과 친환경 연료 사용으로 시장에서 높은 수요 반영 - 일렉시티 FCEV는 180kW의 고출력 연료전지 시스템과 875리터의 수소탱크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 최대 55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, 이는 도심 및 장거리 운행에 적합. 이 버스는 교통량이 많은 노선에서도 안정적인 성능 유지 - 수소버스 1대를 1년간 운영할 경우, 약 72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 가능, 이는 소나무 2700여 그루가 흡수하는 양과 같음.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 - 현대차는 KD운송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2027년까지 수도권 광역 및 시내버스 1,0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며, 이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 필요
		□ 롯데 SK 에너지, 2024 일반수소발전 입찰서 총3개 사업 선정(2024.10.07) - 롯데SK에너지는 2024년 일반수소발전 입찰에서 총 3개 사업을 낙찰받아,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2026년부터 운영할 계획. 이 발전소는 울산공장에 설치되며,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 발전을 목표로 설정 - 해당 발전소는 20메가와트(MW)급과 9MW급의 설비로 구성되며, 총 4개 발전 사업을 통해 울산 시민 약 8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 가능. 이는 울산의 에너지 자급자족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예정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- 롯데SK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 모델과 달리 청정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발전 모델을 적용해 추가적인 설비 변경 없이 수소로 전환이 가능. 이를 통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 - 이번 프로젝트는 울산을 청정수소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, 울산 시의 세수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
		□ HD 현대, 친환경 선박 원천기술 확보 '총력'...수소 밸류체인 구축, '초격차'로 지속 성장(2024.10.09) - HD현대는 친환경 선박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으며, 수소 밸류체인 구축에 주력. 이를 통해 국내외 경쟁사들과 기술 격차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설정 - HD현대는 블루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운송할 수 있는 대형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을 세계 최초로 건조할 예정. 이 기술은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 - 또한 HD현대는 원자력, 연료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,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음. 이는 선박의 친환경 기술 발전에 기여 - AI 기술을 활용한 조선소의 디지털 전환도 진행 중이며,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,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. HD현대는 2030년까지 미래 첨단 조선소를 구축할 계획
	대학교	□ (주)아이세이퍼 · 강릉원주대, 스마트 수소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나서 (2024.10.08) - 아이세이퍼와 강릉원주대학교는 스마트수소에너지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. 이 협약은 스마트수소에너지 마이크로계약학과 트랙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할 계획 - 협약에 따라 학생들은 인턴십 및 현장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며, 기업 요구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됨. 이는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스마트수소에너지 분야에서의 인재 양성을 촉진 가능 - 아이세이퍼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스타트업으로,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수소에너지 산업의 발전 추진 - 이번 협약은 강원 지역의 수소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고,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
	해외	- (해당 없음)
	기타	□ 철도의 최신 트렌드는 '친환경' ...수소와 전기 경합중(2024.10.08) - 철도 산업의 최신 트렌드는 친환경으로 전환되며, 수소와 전기 열차가 그 중심에 있음.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이노트랜스 전시회는 전 세계 철도업계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로, 친환경 기술이 주요 주제로 구성 - 이번 전시회에서는 스위스의 슈타들러, 독일의 보슬로 등이 수소 열차와 수소기관차를 선보였으며,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비전철화 구간에서 운행 가능한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모델들이 주목받음. 이는 환경 보호와 연료 절감에 중요한 역할 수행 - 일본 히타치와 프랑스 알스톰도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된 친환경 고속 열차를 선보이며, 지구온난화 지수를 낮추는 기술을 강조. 이를 통해 글로벌 열차 산업의 친환경 경쟁이 심화 - 한국에서도 현대로템이 수소전기트램을 개발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을 준비, 수소열차와 전기열차가 세계 철도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
		□ 정의선 · 아키오의 수소차 레이싱... '미래차 동맹' 강화(2024.10.08) -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10월 27일 열리는 '현대N ·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'에서 수소차 협력 논의를 위한 만남을 가질 예정. 두 자동차 업계 리더의 만남은 양사 간 협력 강화 가능성을 증대 - 현대차는 이번 페스티벌에서 수소 슈퍼카 'N 비전 74' 를, 토요타는 수소 콘셉트카 'AE86 H2' 를 선보일 계획임. 이는 수소차 기술 발전의 상징적인 모델로, 양사가 미래차 시장에서 협력할 기회를 제공 - 양사는 이미 북미에서 협력 논의를 시작했으며, 이번 만남을 통해 수소차와 자율주행 기술 등 다양한 미래차 기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큼. 이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중요 영향 - 이번 협력을 통해 두 회사는 수소차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며, 이로 인해 수소차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변화가 기대
UAM	민간기업	□ "ESS · UAM · 로봇용 배터리도 키운다"... LG엔솔" 5년 뒤 매출 2배" 비전 발표(2024.10.07) -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사장은 2028년까지 매출을 2배로 확대하고, 배터리 구독 경제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함. 비전 발표에서 전기차 배터리 외에도 ESS, UAM, 로봇용 배터리 사업을 확장할 계획 - 전고체 배터리 리더십 강화, 다양한 배터리 제품 확대 등을 통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주도할 계획 - 김 사장은 전기차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해 비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강화하고, 새로운 폼팩터 및 저가형 배터리 공급을 늘릴 방침 - LG에너지솔루션은 2026년 전기차 수요 둔화를 극복하고,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전략
	대학교	- (해당 없음)
	해외	- (해당 없음)
우주	민간기업	□ 키프코우주항공, 'KADEX2024' 서소형 EOTS 선보여(2024.10.04) - 키프코우주항공이 'KADEX 2024'에서 소형 전자광학추적장비(EOTS)를 공개. 이번에 선보인 EOTS는 기존 4장의 PCB를 1장으로 통합해 소형화와 경량화를 실현 - 이 장비는 지상, 해상, 항공, 우주 무기체계의 기동성을 개선하고, 신호 손실 및 접촉 불량 가능성을 줄여 내구성과 신뢰성을 높임.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- 키프코우주항공은 감시정찰 분야와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선보이며, 미래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전자광학장비의 선도적 역할을 다짐.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기술을 통해 미래 군사작전에 큰 기여를 할 계획 - 회사는 또한 차세대 다기능 무전기, 지뢰탐지기 등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양산 중이며, KF-21 탑재용 장비의 양산 준비도 진행
	대학교	- (해당 없음)
	해외	□ NASA, 목성위성 '유로파'에 우주선 띄운다...생명체탐사(2024.10.06) - NASA가 유로파 클리퍼라는 무인 우주선을 발사해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탐사할 계획. 유로파 클리퍼는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에 실려 발사 예정 - 이 우주선은 약 29억km를 이동해 2030년에 유로파 궤도에 진입한 후, 유로파의 환경을 정밀히 조사할 예정. 유로파 표면 위 25km 고도에서 50회 비행하며 위성의 다양한 부분을 스캔 계획 - 유로파는 얼음층 아래 염도가 있는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, NASA는 이 탐사를 통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탐구. 탐사선에는 고해상도 카메라, 레이더, 자력계 등 첨단 장비 탑재 - 이번 탐사는 NASA가 개발한 우주선 중 가장 큰 규모로, 대형 태양광 패널을 장착해 목성계의 에너지 수급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됨. 이는 우주 탐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기대

-끝-